

극장, 시대와 사회를 담는 또 다른 그릇

글 · 구본준 bonbon@hani.co.kr

공공건축물은 언제나 그 시대의 코드를 담는다. 이런 공공건축물 중에서도 한 시대의 상징이 되는 건물이 있다. 그 시대 최고 권력자가 최고의 건물로 남기기 위해 국가적 사업으로 지었던 건축물이다. 고대에는 제왕의 무덤이었다. 피라미드와 진시황릉같은 거대한 장묘 건축물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동서양과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오랜 세월 동안 가장 공들여 세웠던 국가 상징 건축물은 바로 종교 건축물이었다. 고대의 신전, 이슬람의 모스크, 동양의 절, 그리고 서양의 성당이다. 나라마다, 도시마다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종교 건물을 남겼다. 이런 종교 건축물에는 그 시대 최고의 기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화 코드들이 담겼다. 그래서 국가대표급 종교 시설은 그 시대를 총체적으로 구현하는 거대한 문화 상징이었다. 서양의 놀라운 고딕 성당은 저 높은 곳을 향하려는 신앙심,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던 제왕과 교황의 전제적인

통치력,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지고의 경전이었던 성경 속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다. 동양의 사원도 마찬가지였다. 신라의 불국사, 중국의 소림사, 일본의 호류지 같은 절은 나라의 힘과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은 건물이었다.

한 나라를 상징하는 이런 국가 프로젝트 건축물은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면서 그 장르가 바뀌어왔다. 종교의 시대 절과 대성당은 현대에 들어 어떤 건축물로 바뀌었을까? 민주주의와 의회의 시대가 열리면서 의사당 건물이 등장했고, 현대에 들어 스포츠가 중요한 국가 이벤트로 정착하면서는 각종 경기장이 국력과 대중주의의 상징 건물로 새로 떠오르기도 했다.

극장, 필수불가결한 정치적 수단

이처럼 시대와 국가를 상징하고 반영하는 건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건축 장르가 공연장, 바로 극장이다.

극장은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 좌석만 갖추면 되는 극도로 간단한 구조의 건물이지만, 예상 이상으로 자기 시대와 문화, 그리고 정치 체제를 담아내는 건축물이다.

그 이유는 언제나 권력자는 대중들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시설을 필요로 해왔고, 그래서 국가 전체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극장을 지어왔기 때문이다. 동양에서는 극장이란 별도의 공연시설이 없이 궁궐이나 특별한 종교 시설에서 국가적, 종교적 제의와 퍼포먼스를 펼쳐왔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던 공간이지만 서양에서는 극장이 늘 사회와 공동체의 중심에 존재해 왔다. 서양 주요 도시의 한복판에 예외 없이 대형 극장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면 극장의 이런 속성을 잘 알 수 있다. 극장은 문화의 장이지만 본질적으로 시대적 정치적 오브제라는 속성을 지닌다.

서양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지금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극장 건물들이 도시마다 등장했다. 프랑스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나폴레옹 3세가 파리 정비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사업이 파리 오페라 극장이었고, 제정 러시아는 모스크바에 볼쇼이 극장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마린스키 극장을 지었다. 현대에 들어와 권력구조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어도 권력자들에게 극장은 언제나 필수 불가결한 정치적 수단으로 애용됐다. 프랑스 부흥을 부르짖었던 미테랑 대통령은 바스티유 감옥 건물을 오페라 극장으로 지어 파리에 또 다른 오페라극장을 남겼다.

이런 속성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해방 이후 첫 권력자였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서울 시민회관을 지었고, 박정희 정권은 국립극장과 세종문화회관을 지었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도 마찬가지였다. 서울 강남권에 예술의전당이 라는 초대형 극장 건물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했다.

이처럼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극장은 언제나 1순위 대상이 된다. 건축으로 보면 극장은 관공서 건물들이 그 속성상 디자인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과 달리 과감하고 화려한 디자인을 시도하기 쉽다. 그래서 더 국가대표 건물로 선호된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달걀 모양의 중국국립대극장을 지은 것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한강 노들섬에 춤추는 모습을 형상화한 대형 오페라하우스를 짓기로 밀어붙인 것은 극장의 이런 속성을 잘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들이다.

그리스, 로마시대의

정치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극장 건축

세계에 정착된 이런 서양 극장 건축 문화의 효시는 고대 그리스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서양 문명의 뼈대가 된 그리스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라면 파르테논 신전부터 떠오르지만 거대한 원형 극장들도 그 못지않은 중요한 국가적 건축물이었다. 고대 그리스를 상

중국국립대극장



정하는 극장으로는 에피다우로스 극장이 꼽힌다. 기원전에 만들어진 이 극장은 무대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반원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지금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이 극장이 이후 전세계 극장들의 원형이 됐다.

고대 그리스 시민들은 이 극장에서 연극 등의 볼거리를 즐길 수 있었다. 물론 그 시민은 그리스 사람이면서 성인 남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객석에 신분에 따른 구별이 없이 모두 똑같은 모양으로 디자인한 점에서 그리스 민주주의를 그대로 반영한다.

그리스의 뒤를 이은 로마제국은 넓은 제국 곳곳에 거대한 극장인 원형경기장들을 지었다. 언제나 새로운 볼거리를 원하는 대중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정치를 잊게 하는 오락 볼거리로 대중들을 우매하게 만들어 복잡한 세상사를 잊게 만드는 정치적 전략이 본질이었다. 너무나 널리 알려진 콜로세움이 대표적이다.

콜로세움은 로마제국이 얼마나 극장 건물을 중요하

콜로세움



게 여겼는지 잘 보여주는 건물인 동시에 로마제국의 계급 구조를 그대로 전해주는 유물이다. 고대 그리스 극장이 민주정을 반영해 객석 차이가 없었던 것과 달리 콜로세움은 객석을 신분 계급에 따라 다섯 단계로 구분했다. 그리스 사회가 원형극장에서 연극을 즐겼다면 로마는 콜로세움을 비롯한 여러 원형경기장에서 잔인한 검투사들의 살육 게임을 오락으로 즐겼다.

이렇게 서양 문명 초기 중요한 국가적 건축이었던 극장은 그러나 중세 이후 도시에서 사라졌다. 기독교가 서양 문명을 지배하면서 모두가 모여서 화합하고 연극이나 오락을 즐기며 시름을 잊는 극장 대신 성당이 사회의 모든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건축물로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1천년 이상 사라졌던 극장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든 다음이었다. 1585년 르네상스의 중심지 이탈리아에 고대 로마의 극장을 실내에 재현한 '테아트로 올림피코', 곧 올림픽 극장이 들어서면서 극장은 다시 건축 역사에 등장했다.

르네상스와 함께 부활한 서양 극장 건축은 이후 시민 계급이 형성되면서 다시 건축사의 주요 분야로 자리 잡았다. 왕정시대 궁궐의 부속 홀 같은 공간이었던 공연장 대신 새로운 주류 엘리트들만을 위한 전용 별도 극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파리를 대표하는 오페라 극장, 일명 가르니에 극장은 부르주아라는 신계급의 극장으로 탄생했다. 19세기 부르주아들의 미감을 극명하게 반영하는 이 건물은 지나칠 정도로 화



파리 오페라극장

려하게 꾸민 것이 특징이다. 귀족들에 저항해 등장했지만 귀족들처럼 치장하기를 좋아했던 부르주아들의 줄부 같은 취향이 극장 건물에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민주적인 공간구성으로 호평받는

베를린필하모닉콘서트홀

이렇게 문화와 사회를 담는 그릇인 극장은 현대에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게 된다. 예술의 소수 지배계급, 부유층들만의 전유물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대중화되면서 극장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나면서 여러 나라와 도시들은 경쟁적으로 극장을 짓게 된다. 극장이 랜드마크로 알맞기 때문이다. 도시의 매력을 더해주는 볼거리로 극장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지금 세계 각국과 주요 도시들은 세계 유명 건축가들을 불러 경쟁적으로 대표 극장을 짓고 있다. 도시민들의 문화 공간이란 기능보다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써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오스트리아가 자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전략상품으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만들어 성공을 거둔 것이 대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적 사례다. 이런 현대의 명물 극장들은 이전 세대 극장들과는 또 다른 현대의 문화와 가치관들의 산물이기도 하다.

2차대전으로 폐허가 된 베를린시가 재건을 시작하면서 다른 건물들보다 먼저 다시 지은 건물 중의 하나가 바로 베를린필하모닉콘서트홀이었다. 한스 샤로운이 설계한 이 콘서트홀은 그 겉모습보다는 내부에 그 진정한 의미가 숨어있다.

베를린필하모닉콘서트홀은 특이하게도 연주 무대가 맨 끝에 있고 객석이 부채꼴 모양으로 무대를 바라보는 구조가 아니라 무대가 내부 가운데에 있고 객석이 무대를 둘러싼다. 샤로운은 사람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음악을 듣는 모습에서 이 새로운 무대 배치를 착안했다. 거리에서 음악을 연주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연주자 주변으로 동그랗게 모이기 마련이다. 이 모습을 그대로 무대 배치에 적용했다. 또한 기존 극장들의 객석 구조가 갖고 있는 계급적인 위계를 깨부수려는 의도도 있었다.

세상이 민주화되었지만 극장들은 여전히 철저하게



베를린필하모닉콘서트홀 내부

계급적으로 자리를 배치해왔다. 예전에는 무대 앞쪽부터 왕-신하-그리고 더 낮은 계급의 관객 순으로 자리를 배치했고, 산업화 이후에는 자리의 가격에 따라 서열이 매겨진다. 베를린필하모닉콘서트홀은 이런 배치를 허물고, 어떤 좌석에서도 음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민주적인 공간을 구성했다. 이런 점에서 이 콘서트홀은 극장이란 공간에 현대 민주주의의 시대의 가치를 잘 반영한 극장으로 평가받으며 건축사의 걸작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극장들은 어떻게.

1973년 지은 국립극장은 미국 뉴욕의 링컨센터를 모델로 해서 웅장미를 강조하는 영웅주의 건축 경향을 따른 건물이다. 동시에 건물 처마 끝을 치켜 올리게 하는 등 전통 건축을 접목한 디자인을 추구했다. 현대적 건물에 전통 디자인 요소를 접목하려 했던 70년대 한국

공공건축의 화두를 그대로 보여준다.

역시 70년대 말에 지은 세종문화회관은 더욱 충실하게 전통적 느낌을 구현하려 시도한 점에서 70년대 한국 공공건축물의 의무의식과 디자인 경향을 극명하게 반영한다. 한국 전통건축 특유의 기하학적 문양을 가져왔고, 서까래와 처마, 지붕을 한국적인 모양새로 꾸몄다.

세종문화회관에는 또한 당시의 정치적 인식과 사회적 특성까지 그대로 반영됐다. 세종문화회관의 개관일은 1978년 4월 14일로,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 꼭 하루 전날이었다. 당시 남한과 북한이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기였는데, 정권에서 김일성 생일 하루 전으로 개관을 앞당기도록 지시했다. 지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겠지만 당시로선 그런 사소한 것까지 서로의 신경을 썼던 냉전 시대의 풍경을 전해주는 뒷이야기다.

또한 당시 독재정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 회의장으로 쓰기 위해 최대한 많은 좌석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 맨 위층 뒷자리는 경사가 대단히 높고 공연 음악을 감상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아 음악용 공간이 아니라 행사용 공간이라는 악명이 높았다. 2000년대 들어 세종문화회관은 음악 전용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부 객석 공간을 줄이고 새롭게 치장하는 대대적인 리노베이션 작업을 벌여 독재 시절의 흔적은 어느 정도 사라졌다.



국립극장

이들 두 극장보다 나중인 80년대 지어진 예술의전당은 전두환 정권의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피로 물든 독재자의 이미지를 문화로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고자 스포츠와 문화 사업을 잇달아 기획했는데 그 중 하나가 예술의전당 건립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 치적으로 꼽는 1986년 아시안 게임 개최 이전에 개관하도록 임명을 내렸지만 공사상의 어려움으로 결국 노태우 정권기에 문을 열었다. 처음 예술의전당 디자인은 지금과 달랐다. 어느 날 갑자기 정권 고위층에서 “한국적인 디자인으로 바꾸라”는 지시가 떨어져 갑자기 콘서트홀은 부채 모양으로, 오페라극장은 전통 갓 모양으로 바뀌게 됐다. 어찌됐든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추진과정은 독재정권에서 가능한 밀어붙이기식 기획과 추진으로 대중교통수단도 제대로 없는 서초동 산기슭에 들어섰고, 전통을 드러내야 한다는 정치권의 비문화적인 고정관념에 디자인이 변형된 80년대 한국 사회의 모습과 한계가 예술의전당에 모두 들어있다.



▲ 세종문화회관
▼ 예술의 전당

《희망세상》은 2010년 1월호부터 “민주주의전당을 디자인하자”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학습하는 공간, 민주주의를 성찰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민주주의전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의 건축물들이 지닌 특성과 장단점, 공공건축물과 조형물에 담긴 의미 등을 탐색해 보면서 한국민주주의전당이 갖춰 나가야 할 모습, 담아내야 할 내용들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글 구본준 | 《한겨레》 대중문화 팀장, <http://blog.hani.co.kr/bonbon>